

자연석 허튼층 쌓기로 성곽 축조, 남도 문화 답사 일번지로

- 유구 조사와 발굴 작업 더더 사업 지연, 안정적인 정부 예산 지원 아쉬워 -

남도 답사 일번지 강진. 예로부터 전라도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동순천(東順天) 서강진(西康津)’이라 불리어 온 강진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만큼이나 많은 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세계적인 청자를 빚어냈던 도요지 외에도 정다산 유적지, 전라병영성지, 영랑 생가, 그리고 수많은 불교 및 유교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다.

이 가운데 전라 병영성은 조선조 500여년간 전라도 육군의 총지휘부였던 곳으로 1417년(태종 17년) 본래 광산현(현 광주시)에 설치되어 있던 병마절도사영을 이설한 것이다. 이 성은 초대 병사인 마천목 장군이 축조한 평지성으로, 남북으로 약간 긴 장방형이며, 총연장은 1,060 m이다. 1599년 권율의 상소로 일시 장흥으로 이설되었다가 1604년 다시 지금의 위치로 옮겨오기도 하

였다. 특히, 병영성은 제주도에서 표류 중이던 네덜란드인 하멜이 압송되어 8여년 동안 억류되어 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1894년의 동학농민전쟁으로 성이 함락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듬해인 1895년 복구되지 못하고 폐영되었다. 이후 100년이 지난 1997년 국가 사적 제397호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다.

폐허지경의 병영성, 성곽 외형만 남아

병영성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으며 현재의 상태는 어떠한가. 전라병영성지의 위치는 현재 병영초등학교가 자리한 성동리 138번지 일대이다. 병영성은 평지에 축조된 성으로 남북으로 기다란 장방형 석성이다. 성곽이 네모나지 않고 남북으로 긴 것은 해자(壕字)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금도 서쪽

과 북쪽으로는 조그마한 수로가 지나고 있다. 성 내부 면적은 약 2만 8,000 평에 달한다. 「병영지」(1895)에 따르면 둘레가 2,820자, 높이가 18자, 성 위에 낮게 쌓은 작은 담장인 여첩이 302자, 웅성이 12개소, 포루가 2개소, 연못 5개소, 우물 9개소, 그리고 동문·남문·북문이 있었다. 건물로는 객사, 동헌, 서헌 등 총 96칸이 들어서 있어 웅장한 규모였다고 한다.

하지만 병영성은 현재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폐허 상태이다. 다만 이곳이 병영초등학교로 이용되면서 그나마 성곽의 외형만은 조금 남아 있다. 가장 견실하게 남아 있는 곳은 남측 성벽과 동측 성벽의 일부 구간이며, 나머지는 지형상으로 그 윤곽만 드러나 있을 뿐이다. 부대 시설로는 수구지(水口址) 3개소와 웅성지(甕城址) 7개소이다.

이 외에 주춧돌 5개와 장대석 여러 개가 초등학교 안에 흩어져 있으며, 병사와 관원들의 공적을 기리는 선정비 6기와 불망비 11기 등 총 25 기의 비석이 병영 면사무소 안에 옮겨져 있다.

2007 년까지 490 억원 투자해 복원

이러한 병영성이 지금 복원되고 있다. 지난 1998 년 말 착공된 이 복원 사업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를 포함하여 총 490 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국비가 70 %, 도비와 군비가 각각 15 %씩 투입된다. 지난해까지 약 75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올해는 약 40 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성곽을 비롯하여 동서남북의 문루와 옹성, 군기청, 동헌 등의 발굴·복원과 더불어 주변 정화 사업으로 한골목 정비 등이 들어 있다. 이는 전통과 현

자연석 허튼층 쌓기 방식으로 시공 중인 성곽 축조 공사.



해남에서 유입된 자연석을 고르는 작업.

대, 그리고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꾀하고자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끝나면 앞으로 병영은 순천의 낙안읍성이나 고창읍성은 물론 한국민속촌에 버금가는 관광과 체험의 명소로 탈바꿈해 명실상부한 강진 제1의 문화 유적 답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영성 복원 사업은 오는 2007 년 완료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유구 조사와 초등학교 이설이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유적을 복원할 계획이다. 성곽 안의 건물도 1895 년에 제작되었다는 「병영지」와 전라도 강진현지도의 「병영성도」에 자세히 기록되어



강진군 전라 병영성 복원 공사 현장

있어 고중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유구 조사와 발굴 작업 진행이 더딘 데다가 학교 이설마저 난항을 겪고 있어 공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병영초등학교의 이설 지연으로 병영성 내부 건물의 복원은 공사 일정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병영성 복원 공사는 연차 공사로 수행되고 있어 사업 진행도 불안정적이다. 전남도 및 강진군의 재정이 넉넉지 못해 국고 지원이 절대적인데 경기 불황 등으로 중앙 정부의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전체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연석 허튼층 쌓기로 성곽 축조

이에 따라 병영성 복원 공사는 주로 성곽 공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연장 1,060 m(성곽 높이 4.87 m) 중 40 % 정도를 복원하였다. 성곽은 1999 년 남문 옹성 20.1m를 복원하는 것으로 시작돼 2000년에는 남문 옹성 20.6m, 체성 110.5m 등이 복원되었다. 2001년에는 체성 119.4m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서문 옹성 42 m, 체성 62.8m가 복원되었다. 올해는 12월까지 체성 200 m를 복원할 계획이다.

성곽 축조는 가장 일반적인 자연석 허튼층 쌓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 방식은 수평 한 줄로 돌을 이어 쌓는 커가 규칙적으로 되지 않도록 돌을 쌓는 방법이다. 국내 대부분의 성곽이 이 방식으로 축조되었으며, 줄눈이 서로 맞물려 있어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다. 문제는 어떤 돌을 쓰느냐에 달려 있다. 성곽 축조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진개발은 해남에서 자연석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조준상 현장소장은 “성곽 축조 공사에서는 돌 구입이 가장 중요한데 병영성 성곽 공사의 경우 다행히 인근 지역인 해남에서 좋은 자연석을 구할 수 있어 공사 여건만 호전되면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문화재 복원 사업은 공사 과정에서 창작이 따로 필요 없는 만큼 안정적인 예산 지원만 뒷받침된다면 사업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숙련된 기능공들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도 제1의 문화 유적 답사지로

한편, 병영성 복원 사업과 함께 부대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네덜란드촌 조성 계획도 강진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한골목은 동양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조화돼 나타나는 유일한 곳이어서 그 복원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의 흙과 돌로 네덜란드의 전통적인 빗살무늬 기법을 이용해 만든 돌담이 대부분 원형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골목은 병영면 성동리 70 번지 일원에 약 1.2km에 걸쳐 위치해 있다. 이 골목은 하멜 일행이 살았다는 동성마을 은행나무 부근에서 병영교회 쪽으로 30 m쯤 꺾어들면 나타난다. ‘골목이 크고 길다 고 하여 한골목이라 불리는 이 골목은 병마절도사나 군관들이 말을 타고 수인산성을 순시할 때 이용했다고 한다. 이 골목은 다른 골목에 비해 담장이 높은 편인데, 이는 담이 낮으면 말 위에서 집안

복원된 병영성 남측 성벽.

이 훤히 들여다보일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래 말을 타고 지나다닐 정도의 좁은 비포장 길이었는데 1989 년 농촌 개발 사업으로 노폭을 4m로 넓혀 포장해 놓았다.

하지만 길을 넓히면서 한 쪽 담장은 허물어 버리고 블록담을 쌓아 좌우가 이질감을 주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기존의 기와집을 허물고 양옥으로 신축하면서 담을 훼손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에 강진군에서는 총 42 억원을 들여 1.2km의 한골목을 정비하는 한편 연면적 300 평 규모의 하멜 민속전시관도 신축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내년 말에 완료될 계획이다.

병영성이 자리한 강진 병영면은 지금이야 보잘것없는 일개 면으로 전락했지만 1474 년(성종 6년) 현재의 위치로 강진읍이 옮기기 전까지 천년 고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중심 현상이었다. 병영이라는 고을 이름도 전라병영성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것이다. 따라서, 병영성이 원래대로 복원되고, 한골목이 정비되면 병영은 다시 한번남도 문화유산의 본영으로 승격할 것으로 보인다. (C)

글 : 이형우 사진 : 최영익